

전남도, 해남에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문열어

도내 5번째...상당실 등 배치 피해아동·부모 보호 업무도

해남에 전남지역 5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전날 해남군 해남읍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2층 건물로 마련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부모가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1층에 심리치료실과 상담실 등을 배치했다.

남부권기관은 해남·장흥·강진·완도·진도 등 5개 군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

게 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4곳(전남·서부권·중부권·북부권)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했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 수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전남도는 남부권에 추가로 기관을 설치하고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고 올해 1월부터 임시사무소에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남부권을 비롯한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해남군 해남읍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해남군 제공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으로 아이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사랑의 떡국떡 나눔행사

무안 운남면 새마을부녀회

무안군 운남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양순)가 지난 19일 운남면사무소 앞에서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했다.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마을별 신년맞이 행사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년 부녀회에서 이어오고 있다.

부녀회원들은 떡국떡 200kg을 어려운 이웃이나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건강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기원했다.

서양순 부녀회장은 “새마을부녀회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운남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운남면장은 “이웃들이 나눔을 받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무안군 운남면 새마을부녀회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떡국떡 나눔 행사를 펼쳤다.

무안군 제공

신안 추포도 투자심사 통과 음식관광 명소화사업 본격화

신안군은 암태면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사업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본격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신안군에서 추진한 관광사업 중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신안군은 오는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을 섬 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핵심사업인 식문화복합센터(연면적 6970㎡)는 인포메이션, 연구소,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식문화 연구·교육·체험을 위한 시설을 두루 갖추며, 숙소 36실을 계획해 체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산물관매점, 레스토랑, 푸드비치아시장, 다이닝파크, 산책로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신안군에서는 내년 초 설계 공모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늦어도 2025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포도는 동서로 150km, 남북 100km에 펼쳐진 신안군 중심점에 있다”면서 “섬 음식문화 자원화를 통해 세계적 맛의 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촉구’ 결의

도 공사·출연기관 19개 기관장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19개 기관장들이 20일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안군이 대화와 공론의 장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 지역발전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서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에 활력을 주는 공항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안국제공항이 2025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가 연결되며 향후 항공국가산단과 배후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기관장들.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전체의 미래 설계에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지난 11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궤도에 올랐음에도 무안공항 통합 이전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 17일 무안으로 광주 민간·군공항을 통합 이전하고 무

안군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피해 대책 토론회 및 공동회의 개최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냈다.

무안군과 지역 정치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 공사·출연기관장들은 “공항 이전 관련 갈등이 봉합되고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영암군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왕인문화축제는 2020~2021년 선정에 이어 이번에 문화가치와 관광상품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코로나19를 감안하면 영암왕인문화축

제는 2회 연속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셈이다. 24회째 왕인문화축제는 축제장 전역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등 전통과 트렌드 조화로 호평을 받았다.

축제기간 89만명의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추억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인물 중심 축제에서 콘텐츠 중심 축제로 진화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부터 왕인 인물에서 왕인이 전한 문자·활자·책과 가치에 주목해 인문학·환경·친선·교류 등을 주제로 콘텐츠로 꾸민다.

영암군은 2024~2025년 동안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비 지원, 홍보·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전문 상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영암=이병영 기자

목포항구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25개 지정축제에 신규 입성

목포시는 목포항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 문화관광축제는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주민 지지 호응도 등을 종합해 선정하고 있다.

목포항구축제는 국내 유일 항구축제로 전통파시 콘텐츠의 차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전국 1200개 지역축제 중 25개 지정 축제에 신규 입성하는 영예를 얻었다.

목포항구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유망축제가 지정제로 개편된 후부터는 2020~2023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왔다.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관련,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우수축제, 조직 운영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 체계 등 우수성을 확인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목포항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 지원받게 된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통해 풍요로운 목포항을 재현하고 ‘청년이 찾는 글로벌 파시 항구’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항구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탄소중립 포인트 활용 492톤 감축 해남군 관내 1819세대 참여

해남군은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관내 1819세대에 인센티브 3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는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해남군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해 지난 1년간 이산화탄소 492톤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45ha 산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맞먹는 수치이다.

군은 해남형 ESG와 연계해 군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식확산과 가입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탄소중립 포인트제의 적극적인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도비 지원을 받아 올해 신규가입한 1000세대에 대해 가입 인센티브 1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운영해 1년간 주행거리를 감축한 59명에 총 396만원을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가구당 1년에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가입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